

응축과 집요함의 '첨장'



돌기에 시간의 꺾적을 담다

고양시 공예명장 — 도예가 윤주철

햇살이 따사로운 봄의 문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도예 공방을 찾았다. '윤철예가'라는 비석이 발길을 맞이하는 이곳은 고양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윤주철 도예가의 작업실이다. '첨장기법'이라는 독특한 도예기법을 도자기에 접목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윤 도예가를 만나 한국 도자기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WRITER. 임기선



1. CHEOMJANG 210110
45×30×30 첨장기법 / 백색자기토, 안료, 수금



2. CHEOMJANG 180525
28×20×20 첨장기법 / 백색자기토, 안료, 수금



3. CHEOMJANG 201224
45×30×30 첨장기법 / 백색자기토, 안료, 수금

현대 한국 도자기는 무엇인가?

경북 안동이 고향인 윤주철 도예가는 옹기를 만들던 외가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도자기에 관심을 가졌다. 4남매 중 장남이었기에 도예를 하는 것에 가족의 반대가 심했지만, 고집 센 윤 씨 가문의 만아들답게 윤 도예가는 청주대 공예학과를 거쳐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도예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아버지는 만아들이 도예가의 뜻을 굽히지 않자 할 거면 제대로 해보라며 '윤철예가'라는 비석과 용지를 마련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미대 쪽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화나 디자인, 공예 같은 것도 배우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게 옹기여서 처음부터 도자기를 하려고 미대에 들어갔어요. 당시 입시 경쟁률이 15:1 정도로 공

예학과와 인기가 높았어요." 가족들의 지원과 격려로 새내기 도예가로서 활동하던 2000년대쯤, 외국 전시에 나갔다가 벼락같은 질문을 받았다. 현재 한국 도자기의 주류는 무엇인지, 윤주철이 만드는 도자기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국 도자기의 흐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학, 대학원의 은사님이나 교수님들은 모두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고, 커리큘럼도 서구권에 맞춰져 있었어요. '한국만의 정체성이 담긴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도자기를 하려고 했고,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 도예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죠."